

사람이 만든公害 사람이 제거할 수 있다.

俞仁浩(중앙대학교수 경제학)

大邱에서 두차례 수돗물 소동이 났다. 서울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천몇백만 수도권 사람들의 물을 구하는 행렬은 부산까지 이어질지도 모른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런데 수돗물 소동은 大邱나 釜山에서만 일어나라는 법은 없다. 당장 서울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먼 장래의 일이 아니고 내일이나 모래로 닥쳐올 수도 있다. 아찔한 속에서 살고 있다는 일이다. 지금 발등에 떨어진 것이 수돗물이지만 다른 것들도 아찔아찔한 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환경 전체가 自律능력(물이 흐르는 동안에 저절로 깨끗하게 되는 힘)을 잃고 있다. 작년보다 금년은 더 심해지고 틀림없이 내년은 금년보다 더 심해질 것은 뻔한 일이다. 우리는 뻔한 일을 뻔하게 보고만 있는 것이다.

20년전 내가 “고도성장은 생활환경을 무자비하게 파괴하였으며 금수강산을 공해강산으로 바꿔 놓은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고 썼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거의 무관심했다. 성장에서 얻는 효과보다 파괴된 환경을 되살리는

데에 지출할 비용은 몇갑절이 된다고 해도 정부나 기업은 모르는 척했다. 그러는 사이에 강물은 썩어버리고 공기는 혼탁해지고 공장에서는 직업병환자들로 아우성을 치게 된 오늘로 바뀌었다. 내일 또 어떤 위험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생활환경의 파괴는 “하나님의 섭리”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다. 사람에 의해 꾸며진 것이다. 사람에 의해 꾸며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 중단될 수 있고 원상으로 회복될 수도 있다. 정부의 “조국근대화=공업화=수출중대”라는 구호아래 자본가들의 이윤추구 욕심이 무한대로 발휘됨으로써 생활환경은 무참하게 망가졌다. 공해방지에 비용이 지출되면 물건값이 오르고 물건값이 오르면 수출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환경파괴는 묵인되어 왔다.

사람이 살수 없는 곳에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들 무슨 뜻이 있겠는가. 사람은 자기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환경을 지키는데에 합심한다면 공해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 그때 공해는 없어지고 금수강산은 살아나리라.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박영숙(녹색의전화 대표)

요즈음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든 두산기업의 낙동강 폐놀방류사건은 이윤추구를 위해

서는 무엇이 희생되어도 상관없다는 대기업의 일방적 횡포를 단면에 보여준 반면, 깨끗

한 물, 맑은 공기, 신선한 음식을 먹을 권리를 이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굳은 결의가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자연은 재벌의 이윤추구와 정부의 경제성장 명목을 위해 얼마든지 소비되고 이용되는 편리품이 아니라 보존되고, 유지되어야 할 “궁극적인 가치” 그 자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넓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온 인류의 생명 그 자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자연파괴의 비극은 인간도덕성의 문제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보다 빨리 달리고, 보다 많이 소유하고, 보다 풍부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인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을 더럽히고, 사회의 상호의존성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뿐인 지구,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극복하고 자연의 생명과 인간의 삶이 하나임을 깨닫는 새로운 사고

혁신과 실천방안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운동에 여성, 특히 어머니들 만큼 적합한 사람은 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을 비롯한 전 국민이 이 운동의 주체로서 중요하지만 어머니는 생명의 담지자이자 살림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을 살리는 여성들” 모임이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은 너무도 많습니다.

기존의 정치질서와 경제구조 등 인간을 소외시키고 자연을 파괴하는 반생태적, 반공동체적 세력에 대해 개인과 사회, 민족과 인류가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화해와 평화의 투쟁, 병든 자연을 치유하기 위해 인간과 자연이 한 생명체임을 인식하는 새로운 사고의 확립, 이 모든 것을 실천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행정력과 조직력의 확보 등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계를 다스리는 주부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여러 분들의 모임에 마음으로부터의 지지와 격려를 보냅니다.

환경살림통신 창간호 p.5.3.

환경을 살리는 여성들

김정옥(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번에 대구의 폐놀오염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기가 막히는 것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흉칙한 냄새가 나는 폐놀을 먹어서 목이 혈고 설사를 하고 몸이 아픈데도 그 물을 며칠 동안이나 그대로 받아 먹을 수 있었나 하는 점이다.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아마도 대구에 시민환경운동이 전무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가 밖으로 나다니고 떠드는 것을 덕스럽지 않은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므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용기있고 헌신적인 여성만

이 환경을 살리고자 하는 운동에 뛰어 들 수가 있고, 또한 이 운동은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낸다.

오늘날 환경오염이라는 것이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인류와 지구의 장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문제를 지구적인 차원에서 염려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란 것은 너무나 한정되어 있어서 나라나 지구보다는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리는 운동으로부